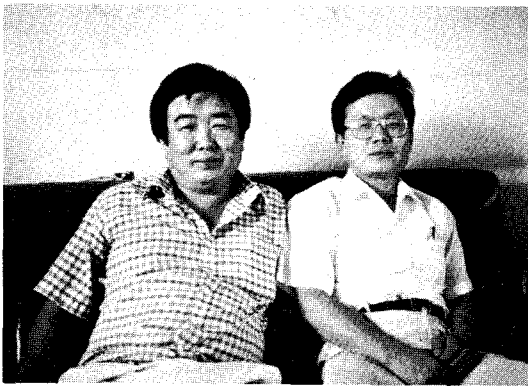


# 제값받는 길은 단합하는 것뿐

취재/김용화 기자



▲윤명준 회장(왼쪽)과 이건표 총무

**자**기가 생산한 계란을 남들이 받는 가격보다 1~2원씩 더 받는 곳이 있다고 하면 “설마 그런 곳이 있을까, 외국의 이야기겠지” 하고 막연히 의심을 대부분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이다. 다름아닌 경기도 김포군 통진면에 있는 김포계우회가 계란 제값받기에 앞장서 모범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찾아보았다.

## 불안한 마음은 시장분석 안된 탓

계란을 포함하여 농산물은 5%만 증감이 되어도 폭등과 폭락을 나타내는 특성이 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파잉생산과 상관없이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시장에 대한 물량파악이 되지않고 있어 그야말로 물건이 처질까봐 우려된 나머지 너도나도 일시에 출하를 하기 때문에 값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현재 김포계우회(회장 윤명준)는 통진면을 중심으로 7개면 채란계 업자들이 한명도 빠짐없이 참여를 하여 지난 '86년 7월7일 결성 이후 지금까지 줄곧 54명의 회원을 유지하고 있다.

김포지역의 채란계수수는 총 80만수에 이르고 1일 계란생산량이 약 50만개나 되는 서울근교의 채란양계 단지이다. 이곳의 채란농장 사육규모는 대개 1만5천수에서 2만수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적게는 몇천수에서 크게는 6만수까지 구성이 되어 있다.

어쨌든 해당 7개면내에 있는 채란업자들이 모두 계우회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이 계란 제값받기를 실천하는데 원동력이 된 셈이다. 윤명준 회장의 말대로 계우회 결성시 창립멤버들이 부부동반으로 봉고버스를 타고 각 농장을 찾아다니며 계몽을 폈을만큼 억척스럽게 활약을 했던 결실이였다.

## 사육규모가 비교적 비슷해 단합 잘 돼

대군농장이 없어 타지역보다는 다소 계우회 결성이 늦었지만 반면에 불화가 적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는 김포계우회는 가장 최우선 목표로 삼은 것이 난가고시였다. 윤회장을 비롯한 창립멤버들이 경험을 통해 느낀 것은 난가고시는 전체 생산자들의 참여없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생산자 전체를 회원으로 가입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일을 추진했던 것이다.

양계업자들이 자기가 생산한 물건을 “값이 터무니 없이 싸다”는 하소연 한마디 못하고 출하를 하는 상황은

그야말로 단결이 되지 못한데서 나오는 일기기에 일단 김포계우회는 생산자 전부를 회원으로 받아들여 통계에 밝은 몇사람이 전국의 물량과 서울·경기지역의 물량을 분석하여 각 회원에게 통보를 하면 그에 따라서 출하를 조절해 왔던 것이다.

### 우량상품 생산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

대부분의 농장들이 호응이 좋아서 지금은 계란을 얼마간 보관할 장소가 마련되어 있어 출하량 조절이 잘 되고 있으며, 골치를 썩이던 대규모 C농장이 다른 곳으로 농장을 이전해 상인들로부터 덩핑기회가 없어진 것이 무엇보다 난가조절에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전 생산자가 계우회에 참여하자 다음으로 별인 캠페인이 우수한 상품을 생산하자는 일이었다. '김포계란하면 질이 좋고 깨끗하다'라는 이미지를 갖게끔 하여 제값을 받아도 명분이 있다는 목표를 가지고 실천해 나갔다.

꾸준히 실시한 결과 이제는 일부이긴 해도 선별기까지 도입을 하여 과란 및 오란을 골라 깨끗한 난좌에 넣어 출하를 하는 것이 당연한 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

계우회 조직에 앞장섰던 윤회장의 말을 들어보면 "이곳 김포계우회 회원들은 타지역보다 1~2원씩은 계란값을 더 받고 있다고 장담을 합니다. 이것은 단결이 잘 되어 있는 탓이기도 하지만 상품 생산에 있어 노력을 기울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처음에야 덩핑치는 상인들이 있었고 이에 마음이 흔들리는 회원들이 있었지만 서로 믿고 단결하여 나가는 일이 살길임을 강조해 나가자 분위기가 잡혀갔습니다"라고 어려웠던 점을 들려주었다.

### 살길은 분열보다 단합하는 일

양계업은 사업개념으로 풀어나가려면 화를 자처하게 된다며 농민의 입장에서 어떤 조직체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만으로 분리심리만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농업을 한다는 생각으로 자기 소득보장을 위해서 단결을 하여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김포계우회 회원들은 보고 있다.

끝으로 양계업계에 대한 지적사항을 묻자, "요즈음 분위기는 전 양계업자가 다 모여 점점 불리해져 가는 입장을 항변해도 모자랄 판에 단결은 커녕 서로의 불평

을 앞세워 분리되고 있는 감이 있는데 안된다고 봅니다. 어떤 단체로든 하나로 뭉치고 지역적으로 뿔뿔 뭉쳐서 우선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은 난좌에 대한 개선점입니다. 지금 형편상 1회용 종이난좌 사용은 전면 실시하기가 어려우니까 쓰고 있는 난좌만이라도 깨끗하게 관리를 하자는 것입니다. 아직도 일부 농장에서 난좌를 구입치 않고 상인의 것을 쓰고 있으니까 위생개념이 전혀 없어 문제입니다.

위와 같은 것이 모두 생산자가 관심을 가져야 해결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축산업 구조가 취약하다 보니 전문인력 양성에 있어 차질이 오고 있습니다. 곧 젊은 축산인이 축산업에 안주할 수 있게끔 장래의 산업을 위해서 같이 생각을 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에서 그리 멀지 않은 김포, 항상 서울·경기가 하나의 조직으로 일원화되어 있지 못해 가격하락의 원인이 된다고, 하지만 김포계우회를 보니 꼭 그런 것만도 아님을 깨달을 수 있었다. 비교적 숫자제시는 없었으나 생산자끼리 단결하여 제값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보다 높이 평가하고 싶다. **양계**

### □ 김포계우회 회원 명단

김포읍	양촌면	고촌면
이건표 987-1327	박영석 988-1123, 4	조진남 82-3272
박찬용 84-5973	김말술 988-1319	이해룡 84-4223
이원섭 84-4922	심재후 988-7121	장호지 84-3827
김차섭 84-3217	김옥환 988-1416	대곶면
월곶면	최영걸 988-1034	정원규 987-3852
윤명준 987-1877	윤점식 988-1627	이형근 987-0997
윤형수 987-1882	이영일 84-5109	정택현 987-2204
임재룡 987-1908	검단면	강신복 987-2051
김인득 987-1931	이건세 84-3338	박용수 987-8286
유방우 987-1731	박찬복 84-2814	최용식 987-0931
장정규 987-1853	김경삼 82-5294	민병승 988-2873
김종원 987-1889	박효수 82-5085	이석수 987-2480
정홍근 987-1851	한웅상 82-5144	통진면
유지명 987-1807	김홍도 82-5170	손광일 987-3707
김현주 987-3391	김상우 82-5182	이호식 987-0357
이경주 987-3498	하대용 82-6581	이호상 987-0380
방동운 987-1884	반길성 825-785	이진유 987-8271
윤복일 987-1900	유정학 82-5519	목문수 988-0216
임도빈 987-1880	이웅교 82-6023	정이현 987-1508
원정식 987-1883		